미국 농업 현장의 '수확기 안전보건' 경고와 시사점

Harvest Season Safety and Health Focus NIOSH Science Blog (Sept. 22, 2025)

번역·정리 대외홍보국 김효진 차장

Presidential Message on National Farm Safety and Health Week

전국 농업 안전·보건 주간에 관한 미 대통령 메시지

백악관, The White House
September 22, 2025

약 250년 동안 우리나라는 훌륭한 농부, 목장주, 그리고 임업인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중요한 기여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국 농업 안전·보건 주간(National Farm Safety and Health Week)'을 맞아, 우리는 우리 농촌 공동체를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게 지켜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농업 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계승하고 번영시키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집니다.

농업은 미국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장비를 관리하는 것부터 예측 불가능하고 극심한 날씨에 대비하는 것까지, 농부들은 매일매일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농부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검증된 안전 수칙을 채택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농업 안전·보건 주간을 맞아, 우리는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 사회에 영양을 공급하고, 국가를 지탱하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수확의 계절은 농업인이 가장 바빠지는 동시에 재해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농기계 사고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세대별 맞춤 보호를 통해 농업 현장을 함께 지켜야 할 때다.

수확기, 농업현장은 안전한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9월은 전국적으로 수확기가 본격 시작되는 시기이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농업 종사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확기는 장시간 노동, 농기계 사용 증가, 교통량 확대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은 여전히 미국 산업 중 가장 높은 재해율과 사망률을 보이며, 자살 위험 또한 다른 직종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해 요인

교통사고 — 여전히 가장 큰 위험

NIOSH는 "농민과 농업노동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라고 지적한다. 수확철에는 트랙터·콤바인 등 느리게 움직이는 농기계가 농촌 도로를 점유하는 빈도가 높아지며, 가시성이 떨어지는 새벽이나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반사표지와 조명 설치, 안전벨트 착용, 전복방지장치(ROPS) 설치, 정기 점검이 필수 안전조치로 제시됐다.

ATV/UTV 안전 — 도로 주행 주의

농촌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ATV(전지형 차량)와 UTV(다목적 차량)도 주요 사고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량의 타이어가 포장도로 주행 시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경고하며, 보호장비 착용과 도로 주행 지양, 동행자에게 이동 경로를 알리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정신건강 — '농업은 본래 스트레스가 많은 일'

농업인은 장시간 노동, 기계 고장, 시장 가격 변동, 가족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특히 수확기에는 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며, 우울·불안·만성질환 위험이 커진다. NIOSH는 "농업인은 유급병가나 워라밸 지원 제도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가족·이웃 간의 상호 돌봄과 심리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대별 안전 고려 필요

미국 농장은 세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아동에게는 발달 수준에 맞는 작업을 부여하고, 고령 농업인은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출처 K. C. Elliott, "Harvest season is here: Busy times call for increased focus on safety and health," NIOSH Science Blog, September 22, 2025, U.S. CDC.